

국토교육 교사 연구모임 결과보고서

★ 추후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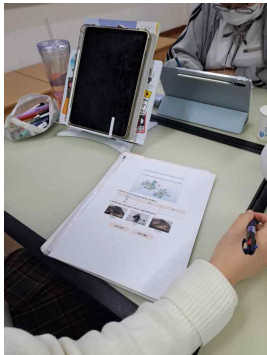
동아리명	전국지리교사연합회			
콘텐츠 종류	수업지도안 및 학생용자료(필수)	☒ PPT	☐ 영상	☐ 기타: ()
콘텐츠 주제	평화로운 공간 독도에 새로운 이미지를 메이킹하자.			

1 수업일 및 수업대상, 수업장소

차시	수업일	수업 대상	수업 장소	비고
1차시	9월 19일(월)	문영여고 2학년 1반 21명	지리 교실	
	9월 20일(화)	문영여고 2학년 2반 20명	지리 교실	
2차시	9월 20일(화)	문영여고 2학년 1반 21명	지리 교실	
	9월 21일(수)	문영여고 2학년 2반 20명	지리 교실	

2 수업 활용 장면(사진 등)

1차시 학습 주제 독도의 지리적 특성 및 자연환경과 고지도 속 독도

수업 설명	2차시 독도의 새로운 이미지 메이킹 수업을 준비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식을 학습하는 수업으로 독도의 지리적 특성에 대한 강의와 모둠활동 수업으로 진행함.		
9월 19일(월) 2학년 1반			
9월 20일(화) 2학년 2반			

2차시 학습 주제 평화로운 공간 독도에 새로운 이미지를 메이킹하자

수업 설명	1차시 독도의 지리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독도에 대한 새로운 장소 이미지를 모색해보는 학생 주도 탐구활동 수업임.		
9월 20일(화) 2학년 1반			
9월 21일(수) 2학년 2반	 		

3 수업 후 학생 피드백 및 콘텐츠 수정 보완 반영 내용

	자문 의견 및 수업 후 학생 피드백	콘텐츠 수정 보완 반영 내용
8월 1일(목) 자문 회의	(자문) 독도에 대한 학습 내용이 체계적이지 않음. 내용을 추가 보완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음.	독도의 지리적 특성을 위치적 특성과 자연 환경적 측면을 강조하여 제시함.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 단순하게 강조하기보다는 일본의 독도 침탈과정을 사실적으로 제시함.
	(자문) 3차시 수업으로 설계하는 것보다 2차시 수업으로 개발하는 것이 적절함.	2차시 수업으로 설계함.
9월 15일(목) 자문 회의	(자문) 학생 입장에서 장소 이미지를 메이킹한다는 것이 매우 모호하고 어려운 주제임. 수업 실연 후 수정 보완 필요함.	수업 실연 후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하기로 함.
9월 19일(월) ~ 21일(수) 수업 실연	(학생) 독도에 대한 이미지 메이킹 방안을 한 차시에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음.	두 차시 수업으로 분할, 2차시는 '평화로운 공간 독도'를 주제로 독도의 장소성을 이해하고, 3차시는 독도 이미지 메이킹 방안을 모색하는 학생 주도 활동으로 구성
10월 20일(목) 자문 회의	(자문) 학생 의견을 반영하여 총 3차시로 개발하는 것이 적절함.	총 3차시 수업으로 자료 완성

4 결론 및 제언

독도는 동해에 위치한 동도와 서도 및 그 주변에 있는 89개의 바위들로 이루어진 작은 섬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독도는 결코 작은 섬이 아닙니다. 독도는 우리나라의 영역 설정과 관련하여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의 국민 의식과 민족정체성을 고취하는 구심점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강하게 제기할수록 독도에 대한 관심과 사랑은 더욱 깊어져 갑니다. 독도는 일본의 팽창적인 군국주의의 부활을 감시하고 경계하는 긴장된 장소이자 우리나라의 주권 수호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그러나 독도가 부여받은 위와 같은 이미지들은 독도에 대한 ‘더 큰’ 상상을 제약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독도에 관해 많은 것을 가르치고 배우고 있지만, 독도 교육의 대부분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저항과 반박의 논리가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의 독도 교육은 일본이라는 대립축을 전제로 하여 우리나라 사람들의 애국심, 국토애, 민족정체성을 기르는 방향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지속적으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일본 사회 내부에서 팽창적인 군국주의 부활을 지지하는 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내부적으로 단결하여 한 목소리를 내야한다는 것은 시대의 요청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라는 타자를 설정하고, 그에 대한 대립구도 속에서만 독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독도가 지닌 더 큰 가능성을 놓치고 있기도 합니다.

2022년 국토교육 교사연구모임 활동을 하게 된 이유는 이러한 제한적인 독도 교육에 대한 비판과 성찰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독도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나라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명백한 영토입니다. 본 전국지리교사연합회 국토교육 교사모임 선생님들은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감상적인 구호로 수렴되는 활동 이외에도 학생들이 독도에 관한 다양한 의미를 발견하고 이에 대한 실천을 꿈꿀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독도를 동아시아 스케일에서 바라보면 일본과의 접경지역을 넘어 한국, 북한, 일본, 러시아가 공존을 꿈꿀 수 있는 동해의 중심에 위치한 매우 중요한 장소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의 독도는 한·일 간의 긴장감이 지배하는 엄숙한 공간이지만, 미래의 독도는 동아시아의 평화를 열어가는 핵심적인 장소로서 그 역할을 요구받게 될 것입니다. 본 연구 활동은 이와 같은 동아시아 평화의 거점으로서의 독도의 역할을 염두에 두고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활동을 통해 독도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고, 교육의 본질에 대한 지속적인 성찰을 통해 독도 교육에 대한 또 다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평화 교육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어떤 공간(장소)가 가지는 이미지에 대한 감수성 함양 교육의 확대 노력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모임 활동을 통해 개발한 PPT와 활동지는 학생 수준에서 독도의 지리적 특성을 이해하고, 독도라는 장소를 지리적 상상력을 발휘하여 새로운 이미지로 메이킹 하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2, 3차시 독도 이미지 메이킹 모색하기 수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교사는 학생들의 자율적인 상상과 실천을 이끌 수 있는 방향으로 활동을 안내해 주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본 개발 자료를 활용하여 수업을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에게는 사전에 답을 정한 후 그것을 제시하기 보다는, 학생들이 활동 과정을 통해 독도에 관한 다양한 상상과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권합니다.